

[메시지] 프로포즈 (3344 여성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 하용조 목사 (2003. 10)

첫째날 ‘사랑이야기’

사랑이란 말처럼 흔한 말도 없습니다. 문학, 음악, 연극, 역사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흔하게 쓰이기는 하지만 참 사랑은 찾기 어렵고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진짜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해보았습니까? 진짜 사랑을 받아봤습니까? 이 말 앞에는 누구나 멍칩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진짜 사랑과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사랑에 배신감과 소외감, 섭섭함이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가짜 사랑, 붕괴된 가정, 정신적 분열증과 우울증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해보지도, 받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 절대적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란 없는 걸까요?

유행가 가사를 분석한 어느 논문에 따르면 유행가 가사의 유형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깨어진 사랑을 노래하는 가사, 불륜의 가사입니다. 이런 노래가 크게 히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잃어버린 고향, 떠난 고향을 노래하는 가사입니다. 이런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핑돌고, 가슴이 저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인생의 고독과 허무를 노래하는 가사입니다. 이런 주제에는 사람들이 쉽게 공감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보면, 사랑을 원했는데 사랑은 없고, 고향을 그리워했는데 고향이 없고, 인생의 의미를 찾았는데 허무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다한 사랑을 위해 불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영혼의 고향을 찾지 못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현실에 집착합니다. 또,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자살하거나 쉽게 타락합니다. 목표없이 되는 대로 살고,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짜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이 촛불이라고 한다면 태양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없을 때 촛불을 켭니다. 그러나 태양이 뜨면 촛불을 끕니다. 밤은 깊지만 결국 새벽이 옵니다. 밝아오는 새벽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새벽이 필요합니다. 그 외롭고 아프고 무섭고 불안했던 밤은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동이트길 바랍니다. 새벽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이 있을까요?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진짜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다가 도중에 그만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둘째, 진짜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목마를까요? 어느 순간은 절대적인 듯 하지만 사실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외롭고 겁이 나는 것입니다. 셋째,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랑은 돈이 있다든지, 매력이 있다든지, 지식이 있다든지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얼굴이 예뻐서 결혼했는데 화재로 얼굴이 망가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많은 집안이라서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이 망했다면 결혼 생활이 계속될까요?

진짜 사랑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진짜 사랑이란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 헌신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과연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자신 있게 이야기 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할까요? 그 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위대해도 배신을 당합니다. 배신을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때 감동하고 눈물 흘리지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도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면 내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는 본능적 사랑,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물도 합니다. 이런 동물적 사랑은 쾌감은 있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둘째, 정신적 사랑입니다. 이상적, 지성적 사랑입니다. 육체적 사랑 안에 정신적 사랑이 내재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육체도 만나지만 정신적으로도 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었다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사랑과 다릅니다. 정신적 사랑에는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간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면 내가 약하고 병들었어도 영적인 사랑은 그 것과 상관없이 나를 감싸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창녀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공주처럼 왕자처럼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프로포즈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진짜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십니까? 외로움과 소외감, 불안을 떨쳐버리고 싶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하고 사랑에 빠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요”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고맙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절대적인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생명을

거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에 익숙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정말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혼자 살아왔는데 너무나 외로웠고 춥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길 바란다. 네 인생에 개입하길 바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네 상처를 감싸주고 네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을 치유해주길 원한다. 아무리 먹어도 목마른 물이 아니라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너희에게 주길 원하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